

로스쿨 입학 합격수기문

천마인재학부 김 교헌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수석합격자 김교헌입니다. 쉽지 않았던 로스쿨 입시에 합격하여 이렇게 수기를 쓸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며 느꼈던 것들이 다음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수험생활 전반

저는 리트(LEET)시험 9개월 전, 그러니까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일 년 더 학교를 다니며 수험생활을 해야 했기에 방학 동안 가능한 많은 준비를 해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학점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것이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이기에 리트시험과 토익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트시험이 입시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더 비중을 둔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토익점수는 방학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만들어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부속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오전에는 정해진 분량의 리트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오답풀이를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긴 시험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길렀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독서를 통해 독해력과 배경지식을 넓히거나 토익공부를 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과 강의를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방학 때와 유사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업이 적은 날에는 방학 중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오답풀이를 하였고 수업이 많은 날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법학서적이나 교양서적들을 읽으며 리트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하고자 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유지하고자 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기에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

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리트(LEET :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리트시험은 한 두달 준비해서 큰 점수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시험이기에 수험 기간 동안 꾸준히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풀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트시험은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독해력과 사고력 등이 점수향상의 핵심이 되는 시험이기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 법학공부를 하면서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리트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언어이해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 중 언어이해가 대체로 학생들의 점수대가 높게 분포하는 과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득점에 실패하면 경쟁자들에 비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고득점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이해는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시험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풀이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어이해는 시간관리가 고득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시간 내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준비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풀이는 리트기출문제, MEET 기출문제, PSAT 기출문제, 사설학원문제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풀이와는 별개로 다양한 서적들을 접하며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배경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법총칙이나 형법총론 책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독해력 향상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타 서적들에 비하여 문장이 길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법학서적들을 읽으면서 독해력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배경지식의 경우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 중 자신이 낯설고 어려워하는 분야에 관계된 서적을 읽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술지문에 어려움을 느껴 관련 서적을 통해 개괄적인 지식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동영상강의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강의를 결제한 뒤 제공되는 문제를 풀고 자체적으로 오답풀이를 하였을 뿐, 강의 자체는 거의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영상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독해방법이나 풀이방법이 좋긴 하겠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다면 해설 강의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문제를 저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추리논증

추리논증은 수험생들이 법학적성시험 세 과목 중 대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몇 문제만 더 맞춘다면 표준점수에서 비약적인 향상을 얻을 수 있기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제 수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푼 문제에서 정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크게 추리와 논증 두 분야로 문제가 나뉘어져 출제되는데, 추리문제는 지속적인 문제풀이와 오답풀이를 통해서 단시간에 점수를 향상시키기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수험생활 초기에는 문제의 패턴과 풀이순서에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꼈으나 2주 정도 집중하여 공부한 뒤에는 추리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논증의 경우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평소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추리문제와는 달리 단기에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학서적을 읽고 내용을 복기하고 도식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였습니다.

추리논증 역시 저는 동영상강의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해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추리문제 중 수리추리 같은 경우 평소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익힌 수학적 지식들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했으며 논증문제의 경우에는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모아 어느 부분에서 사고가 잘못되어 오답을 고른 것인지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공인영어성적

저는 공인영어성적을 갖추기 위하여 토익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영어시험의 점수를 반영하지만 토익이 공부시간 대비 고득점을 얻기에 가장 쉽기 때문에 토익을 선택했습니다.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대체로 유효기간이 2년이기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빨리 점수를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입시준비에 들어가서 리트와 영어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월까지의 영어점수를 만들어두는 것이 리트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험생활 시작 후 영어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토익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진솔하게 작성하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학생활을 해온 과정과 로스쿨 진학 후의 포부가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평범한 학부생활이었기에 독특한 사항은 없었으나 가능한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면접

면접은 대구지역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 토론방식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뉴스나 신문,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나올 법한 주제를 찾아 배경지식을 쌓고 각자 이렇게 찾은 자료를 공유하여 몇몇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연습한 것이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었다는 점과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최근 시사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였는데, 제가 응시한 면접은 모두 법률과 관계된, 최신 이슈에서는 약간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기응변을 대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해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상주제를 뽑아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임기응변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6.로스쿨 입학 앞둔 소감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 입시를 위해 했던 각종 공부들은 로스쿨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학부생활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해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격의 기쁨 한편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번 입시에서 보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마인재학부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에 천마인재학부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면 로스쿨을 목표로 공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천마인재학부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심어주었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교수님이신 배성호 교수님을 비롯한 천마인재학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켜보며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했던 준비를 하게 될 분들에게 제 후기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어 다들 성공적인 로스쿨 입시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